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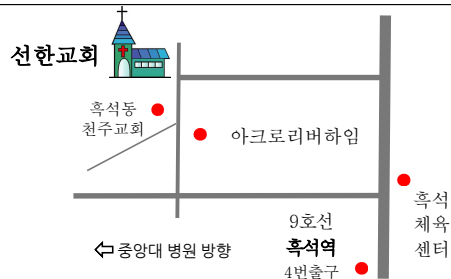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 교 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웅,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마태복음 6장 26절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기원	인도자
찬양과경배	31장 (통일찬송가 46)
교독문	교독문 33 (시편 72편)
찬양과경배	440장 (통일찬송가 497장)
대표기도	조운익 장로
말씀봉독	마태복음 6장 25~33절
설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임춘배 목사)
환영및광고	인도자
파송의노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도	임춘배 목사
성도의교제	다함께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라 (잠4:1-27)

1. 예배 안내

9월 13일(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한 주 더 연장합니다.
 1. 주일예배: 11시 예배만 드림 (예배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는 설교 자료만 제공 / 금요기도회는 영상제공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 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2차): 6개월동안 일독하는 분들은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금주 범위: 창세기1장~창세기 41장]
 4. 경건서적읽기 : 추천도서중 1권 선택 독서 후 나눔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코로나19 기도 제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찬송 :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통 359)
본문 : 아모스 1장 1~15절
말씀 : 아모스는 몇 가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예언자입니다. 우선 최초의 ‘문서 예언자’로 통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예언서를 남긴 첫 번째 예언자란 뜻입니다. 그의 활동영역은 북이스라엘이었지만, 출신지는 남유다 왕국입니다. 왕족이나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으로 18km 떨어진 드고아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가꾸며 살았습니다.(1절, 7장 14~15절) 하나님은 이런 아모스를 불러내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아모스가 예언자로 나선 시기에 에브라임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는 주전 8세기 중반에 40여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경제·정치적으로 번영기를 이룹니다. 북쪽에서는 앗수르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건 한 세기가 지난 뒤입니다. 이런 시절에 남유다의 목자 출신 예언자가 나타나 패망을 예언했으니, 자신감에 차 있던 정치·종교 권력자들이 귀담아들을 리 만무했습니다. 아모스는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 큰소리로 외치면,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50km나 떨어져 있는) 갈멜산 꼭대기까지 마른다”(2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예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까닭은 이웃한 민족을 향해 선포된 심판 예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심판 예언의 대상이 된 족속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과 늘 이웃으로 산 다메섹(아람)과 블레셋, 이스라엘과 형제의 연을 맺은 두로와 에돔, 암몬입니다. 이들은 그 정도가 계속 늘어난다는 의미인 ‘서너 가지’ 죄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지적받은 죄목은 무자비한 살육과 인신매매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다투면서 필요 이상으로 잔인했습니다. 사로잡은 자는 노예로 삼았다가 여지없이 팔아넘겼습니다. 생명과 인권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풍조로 살아가는 건 이스라엘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모스가 선포한 심판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은 떨거나 뉘우쳐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움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언자를 박해하는 죄를 더합니다. 그럼에도 아모스는 묵묵히 예언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토머스 머튼이 번역한 ‘장자’에 나오는 ‘도(道)의 사람’이 아모스를 설명한 듯해 여기 옮겨봅니다. “도 안에서 걸림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에 얽매이지 않으며, 개인적인 이해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경멸하지도 않는다. 남에게 의존함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홀로 걸어감을 자랑하지도 않는다. 대중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대중을 따르는 자를 비난하지 않는다. 지위와 보상에 흔들리지 않으며, 불명예와 부끄러움에 가로막히지도 않는다.”

제목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마6:25-33)	
서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론	1. 기독교인과 염려	
	(1) 기독교인에게 큰 시험: 물질(31절)과 내일(34절)을 염려하는 문제	
	(2)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①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27절)	
	②들플도 입히시거든... 믿음이 작은 자들아!(28-30절)	
	③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32절).	
본론	(3) 염려해결 방법:	
	①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②더 중요한 것을 구하라(33절)	
	③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34절)	
	2. 교훈	
	(1) 내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결론	(2) 나는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심을 믿는가?	
	(3) 세상 염려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내일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조윤익 장로	윤호중 장로

매일 Q.T.		연단과 훈련	날짜 : 9월 7일
찬양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본문	예레미야 29:15~23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곳에서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다음 구원 계획을 위한 도구로 준비시키실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러기에 지금은 유다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바벨론 땅에 정착하고 그 곳 백성으로 온전히 생활하고 포로로서 감내해야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와 그가 이루실 큰 구원을 생각하고 소망하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포로생활의 의미나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이 곧 자신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설파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이에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확인해준다. 이는 예레미야 24장에서 무화와 광주리 비유를 통해 이미 선포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바벨론에 포로가 된 자들은 목숨을 보존할 뿐 아니라 언약을 보존하고 이어갈 주체가 되겠지만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머지 않아 진멸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한다. (16-19절) 이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귀환에 대한 거짓 예언과 환상을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임할 것을 선포한다.(20-23절) 이러한 즉각적인 응징을 하는 것은 그만큼 포로된 자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묵상질문	1.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의 기도			

개인성경공부		네 상처를 낮게 하리라
찬양과 기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새 272/통 330.) 예수 나의 좋은 치료사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한 여왕이 하루는 신하들 중 한 명이 소유한 제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여왕은 너저분한 누더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방을 지났습니다. 방 한쪽에서는 직공들이 누더기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여왕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것들로 종이를 만드는가?” 신하가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최고의 종이는 이런 누더기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여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더러운 누더기로 깨끗한 백지를 만들 수 있는가?” 신하는 “모든 먼지와 때를 제거하는 세척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붉은 냇마에서 모든 색이 제거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궁전으로 돌아온 여왕은 며칠 후 소포 하나를 받았습니다. 소포 안에는 희고 아름다운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여왕의 이름과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종이 아래에는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여왕께서 저희 공장을 방문하셨을 때 보았던 누더기로 아름다운 종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공장이 제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누더기가 종이가 되는 과정을 보며 예수님이 어떻게 악한 죄인의 진홍 같은 죄를 눈처럼 하얗게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걸레 같던 누더기들이 아름다운 종이로 변해 여왕 폐하의 궁전에 가 있듯이 완악한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주님이 오시는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회개하면 눈처럼 희게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전인적인 회복을 맞본 경험이 있나요?	
말씀 나누기	예레미야 30:12~24	
묵상포인트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까지 심판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면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30~33장에서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며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30~33장은 소위 ‘위로의 책’이라 불리는 데, 백성이 징계 중에도 낙담치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서론에 해당하는 30장 1~3절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포로 되었던 자들이 회복되어 귀환할 것을 선포합니다. 4~11절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의 때를 맞기 전에 먼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전합니다. 유다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날에 유다의 목에 있던 멍에를 끊어 버리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압제하던 이방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이 죄로 인해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나,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보우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되리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이스라엘과 유다가 고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이유는 무엇인가요?(12~15절)	
적용하기	나의 잘못과 죄로 인해 고난을 겪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거룩하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못 이겨 죄짓고 결국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죄를 통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소수의 남은자	날짜 : 9월 11일
찬양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본문	예레미야 31:1~9		
	하나님의 끊임없는 호소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렀다. 예루살렘은 황폐화되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70년이라는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랄 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새롭게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감당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 포로의 귀환과 회복은 유다의 회복으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1절)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멸망한 지 100년이 넘었다. 그리고 이들의 다수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여러 지역에 흩어졌고, 그 지역에 남아있던 자들도 이방 민족들과 결혼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상태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2절) 이전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면서 선포했던 회복의 메시지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3-6절, 호세아 2장 14-23, 14장 4-7절) 비록 이스라엘 10지파가 땅끝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들 중 거동이 쉽지 않은 가장 약한 자까지 다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7-9절) 12지파 중 10지파가 오래 전에 멸망했고, 남은 두 지파도 거의 몰락하고, 그들의 정신적 근거였던 예루살렘과 성전마저 파괴된 상황에서 적의 한복판에 끌려간 포로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는 말인가? 자기 생존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소수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믿음을 이어가기만 하면 유다 지파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본래의 뜻을 이루어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도 다르고 큰 차이가 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상황만 보고 쉽게 절망해서는 안 된다. 내가 처한 상황의 척박함으로 인해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된다. 문제는 내가, 내가 부름받고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과 때를 헤아리며 온전히 그를 바라보는 '남은 자'의 삶과 태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묵상질문	1.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			

매일 Q.T.		거짓에 대한 심판	날짜 : 9월 8일
찬양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본문	예레미야 29:24~32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그의 심판, 그의 뜻에 저항을 한다. 이들 중 스마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 왜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본국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한다. (24-28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본국에 있는 종교 권력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예레미야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한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스마야에 대해서도 그와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29-32절)		
묵상질문	1. 거짓에 대해 나는 어떤 마음인가?		
오늘의 기도			

매일 Q.T.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날짜 : 9월 9일
찬양	찬송가 270장 변참는 주님의 사랑과		
본문	예레미야 30:1~11		
	예레미야는 당시 정치 권력자들은 물론이고 종교 권력자들 즉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다. 예레미야와 종교 권력자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그 내용은 극과 극처럼 달랐다. 종교 권력자들은 유다가 비록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일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왕궁과 성전의 예물들을 빼앗기긴 했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결코 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들도 얼마 있지 않아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해서는 안 되고 언제든 돌아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어찌하든지 바벨론과 싸워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도리라는 것이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양심적인 말로 들린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통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그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맞지만 수백 년 동안 이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 이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말씀하셨고, 실제로 크고 작은 심판을 통해 경고를 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다를 이방 왕의 심판 아래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그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거하신다는 오래된 약속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믿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하나님도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여러 차례 약속하셨다. 하지만 유다의 죄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있고(4-7절), 그 심판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8-11절)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가 되지 않고 유다에 남은 자들은 오히려 멸망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 힘든 포로 생활을 감내한 자들의 후손들이 회복된 유다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거듭 말한 것이다.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2년 혹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를 책이 기록하라고 한다. 그래야 70년이 시간이 지나 그 약속을 들은 사람은 다 죽은 이후 그 약속을 듣지 못한 한참 후손들이 그 책의 기록을 통해 이 약속을 새길 것이기 때문이다.(1-3절)		
묵상질문	1. 내가 의지하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			

매일 Q.T.		참된 구원의 길	날짜 : 9월 10일
찬양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본문	예레미야 30:12~24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삶, 즉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껍데기가 주는 헛된 자부심, 종교 의례로 전락해버린 할례와 제사에 의지해서 평안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질타해왔다. 그들은 심판이 이미 임하여 일부분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곧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전파했다. 그러기에 그들은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지 않고 끝까지 멸망의 자리에 머물렀던 것이다. 거짓된 복음, 값싼 은혜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에 예레미야는 참된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제대로 드러나는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 참된 구원의 길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직면하는 데서 시작한다.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은 부상이 심하여 도무지 고칠 수가 없고 이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임을 처절하게 인식해야 한다. (12-14절) 그래야 외부로 향해 구원을 요청할 수 있다. 아니 그렇게도 간절히 나를 돕고 구원하려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는다. 그것은 지금 내가 처한 비참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나 죄를 지었기 때문임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14-15절) 그러지 않으면 단지 자신의 아픔과 비참에 대해 탄식하고 신음할 뿐 하나님을 향하지는 않는다. (15절) 혹은 허공이나 헛된 것을 향해 구원을 갈구하지만 결국 그 상처와 비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죄와 비참을 정확히 인식하는 자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갈구하게 된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할 수 없고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두 손 들고 나아가던 탕자와 같은 자세를 갖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죄와 비참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17절)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며 폐허 가운데서 다시 건축할 것이고 번성하고 존귀할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18-21절)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셨던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고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다.(22절)		
묵상질문	1. 나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의 기도			